

## アジア人の和合と平和の 火が燃え上がる

아시아인의 화합과 평화의 불 타오르다



45億のアジア人の和合と配慮の祭り、仁川アジア大会が華やかな幕を上げ、16日間の熱戦に突入。9月19日午後6時、仁川市西区、仁川アジアードメインスタジアムで朴槿恵(パク・クンヘ)大統領、シェイク・アフマド・アルパド・サバーハ、アジアオリンピック評議会(OCA)会長、劉正福(ユ・ジョンボク)仁川市長、金ヨンス組織委員会委員長、そしてアジア各国のVIPが出席した中、第17回、仁川アジア競技大会の開幕式が開かれた。

開幕式は、'アジアの未来に出会う'というテーマで構成され、6万人の観客とともにした。全4部作で進行された開幕行事では、声楽家の曹秀美(ジョ・スミ)氏が仁川市民919人で構成された合唱団との大合唱をするなど、さまざまな文化行事が華やかに開かれた。

開幕式のハイライトである聖火の点火は、韓流スター'大長今'のイ・ヨンエによって行われた。聖火は先月8月9日、インドのニューデリーと江華島の摩尼山で採火され、中国の威海市をはじめ、国内70の都

市を経て到着した。

16日間の熱戦に突入した第17回、仁川アジア競技大会は、仁川をはじめ協力都市の水原、富川など、9つの地域の49の競技場において、36の競技種目が行われ、10月4日閉会式を最後に幕を閉じる。

一方、仁川の松島コンベンシアで開催された、第33回、OCA(アジアオリンピック評議会)総会では、2018アジア大会の開催都市に、インドネシアのジャカルタが最終確定となった。

45億 아시아인의 화합과 배려의 축제 인천 아시안게임이 화려한 막을 올리고 16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9월 19일 오후 6시 인천시 서구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셰이크 아흐마드 알 파하드 알사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그리고 김영수 AG조직위원회 위원장과 아시아 각 아시아 각국의 VIP가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막식이 열렸다.

개막식은 '아시아의 미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구성되어 6만 관중과 함께 했다. 총 4부

작으로 진행된 개막행사는 성악가 조수미가 인천시민 919명으로 구성된 합창단과의 대합창을 하는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화려하게 펼쳐졌다.

개막식의 하이라이트인 성화 점화는 한류스타 '장금'이 이영애에 의해 진행됐다. 성화는 지난 8월 9일 인도 뉴델리와 강화도 마니산에서 채화돼 중국의 웨이하이시를 비롯해 국내 70개 도시를 거쳐 도착했다.

16일간의 열전에 돌입한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인천을 비롯해 협력도시인 수원, 부천 등 9개 지역 49개 경기장에서 36개 경기종목이 진행되며 10월 4일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한편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제33차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 총회는 2018아시안게임 개최도시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최종 확정했다.

글·사진 김민영 편집장  
文·写真 김민영(김민영)編集長  
gem0701@hanmail.net

### Photo News



**"全部食べ  
てしまっちゃおう!!!"**  
**"다 먹어버리겠다!!!"**

みんな一斉に食べている。皆AGの開会式を観覧するため、仁川アジアード競技場への入場を控えているところだ。しかし彼らは、持参した食べ物のため競技場への入場に足を引っ張られた。理由は、'競技場内への食べ物持ち入り禁止'。検査台の前のごみ箱には、色々な食べ物が捨てられた。大切な食べ物を捨てるのが惜しい人たちが1カ所に集まり始めた。彼らのかばんから取り出された食べ物も多種多様。ゆで卵、のり巻き、お菓子、りんご、お餅、ジュース等等。持ち込みできないなら、"全部食べてしまっちゃおう!"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다. 이들은 모두 AG 개회식을 보기 위해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입장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가져 온 음식물로 경기장 입장에 발목을 잡혔다. 이유는 '경기장 내 음식물 반입 금지'다. 검색대 앞 쓰레기통에는 다양한 먹거리가 버려졌다. 귀한 음식 버리기 아쉬운 이들이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한다. 이들이 가방에서 꺼내 놓는 음식도 다양하다. 삶은 달걀과 김밥, 과자, 사과, 떡, 주스... 너희와 함께 입장 할 수 없다면 "다 먹어버리겠다."

글·사진 김민영 편집장  
文·写真 김민영(김민영)編集長  
gem0701@hanmail.net



열정의물결, 이제 시작이다!  
情熱の波, いよいよはじまる!

## 2014 仁川障害者アジア競技大会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4.10.18 - 10.24**

主催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APC)  
主管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場所 仁川広域市 及び 協力都市 (安養, 河南)  
参加規模 42ヶ国 6,000余名(選手団 4800名, メディア 1200名)  
SNS blog.incheon2014apg.org  
Website www.incheon2014apg.org

주최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APC)  
주관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장소 인천광역시 및 협력 도시(안양, 하남)  
참가규모 42개국 6,000여명 (선수단 4800명, 미디어 1200명)  
SNS blog.incheon2014apg.org  
홈페이지 www.incheon2014apg.org



# 決定的瞬間 '熱戦、その現場'

## 순간 포착 '열전, 그 현장'

平和の息づかい、アジアの未来。OCA会員45カ国の選手たちが、36種目のメダルをめぐる激しい競争を展開している。選手たちは、この4年間磨きあげてきた実力を、思う存分発揮するため、競技場では最後の一滴の汗を出し尽くすまで最善を尽くしている。その激戦の瞬間を目にし、観衆らは熱烈に歓迎する。選手の首にかかるメダルも重要だが、最善を尽くすその瞬間に皆が熱い拍手を送る。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 OCA 회원 45개국 선수들이 36개 종목에서 메달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선수들은 지난 4년간 갈고 닦아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 경기장에서 마지막 땀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낸다. 그 격전의 순간을 보고 관중은 열렬히 환호한다. 선수의 목에 걸리는 메달도 중요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 순간에 모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글·사진 김민영, 차지은 P·文·写真 キムミンヨン(김민영), -チャ・ジウン(차지은)









# 私の歓声が、君の力になる!!!

내 함성, 그대에겐 힘!!!

激戦の瞬間、選手たちに負けず劣らず観衆も手に汗を握る。選手と一緒に息を殺しながら緊張した瞬間をともに、やっとの思いで呼吸する観客たち。ただひたすら応援する彼らの歓声は、エネルギーになって選手に伝わる。それぞれの国の応援メッセージは違っていても、その意味は一つ。“選手のみんな～がんばれ!がんばって! 私たちが応援しているよ。ファイト!!”

격전의 순간, 선수들만큼 관중들도 손에 땀을 진다. 선수와 함께 숨을 죽이며 긴장된 순간을 함께 호흡하는 관중들. 무작정 내 편이 돼주는 그들의 함성은 에너지가 되어 선수에게 전달된다. 각 나라의 응원 메시지는 달라도 뜻은 하나다. “선수들이여~ 힘내라 힘. 우리가 있다. 화이팅”

글·사진 김민영, 차지은 P·文·写真 김민영(김민영), -차·지은(차지은)









# 隠された話、ありがたい人々

## 숨은 이야기, 고마운 사람들

AGの現場は当然のことながら、アジア人でいっぱい。選手として、またボランティアや観覧客として。言語が違い、各自の役割も違っているが、彼らがい

AG 현장에는 아시아인들이 있다. 선수로 봉사자로 관람객으로, 언어는 다르고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그들이 있어 2014인천AG은 완성된다. 그 현장에서 우연히 만난 그들을 통해 다양한 스포츠 종목만큼이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 본다.

글·사진 김민영, 차지은 P文·写真 김민영(김민영), -챗·조운(차지은)

## "何かお手伝いいたしましょうか"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ジュチョンヨプさんとモウイェン미さん 주전엽 씨와 머우옌미 씨



ジュチョンヨプ(36)さんとモウイェン미(32)さんは、観光警察隊でボランティア活動を行っている。文鶴競技場周辺を、仁川地方警察庁の観光警察隊員たちと共に歩きながら、言語疎通が難しく、当惑する観光客を助けている。午後3時から午後5時まで1日2時間ずつ。彼女たちは道を尋ねたり、試合の日程を聞く観光客を案内。また困難に直面した観光客を助けている。

ジュチョンヨプ氏とモウイェン미氏は、中国山東から韓国に国際結婚してきて6年目。南洞区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と一緒に活動している彼女たちは、似通ったところが多い。多文化の治安隊活動と犯罪通訳ボランティアをしているということ、山東が故郷であること、また韓国に嫁入りした年度数と、6歳の子供が一人ずついることまで。しかし、まったく違うのが、ジュチョンヨプさんには、かわいい娘さんがいて、モウイェン미さんには、元気な息子さんがある。同じ志を持ちながらも、違うところもある彼女たちは、ここ仁川で奉仕し

ながら幸せを搜している。

“私たちも、韓国で他の人の助けになるということに、胸がいっぱいなんです。”

観光警察隊は、2014年7月4日に創設。AGの期間中には、文鶴競技場、仁川アジア大会メインスタジアムと選手村を中心に、観光警察隊センターを運営。観光警察隊では、アラビア語、ロシア語、モンゴル語、日本語、英語、中国語、フィリピンなど、10カ国あまりの外国語ボランティア活動が行われている。

주전엽(36) 씨와 머우옌미(32) 씨는 관광경찰대에서 봉사를 한다. 문학경기장 주변을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원들과 함께 걸으며 언어 소통이 어려워 당황하는 관광객을 돕고 있다.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2시간씩. 그들은 길을 묻거나 경기 일정을 묻는 관광객들을 안내한다. 또 어려움에 처한 관광객을 돕고 있다.

주전엽 씨와 머우옌미 씨는 중국 산둥에

서 한국으로 결혼해 온 지 6년째다. 남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비슷한 것이 많다. 다문화치안봉사대 활동과 범죄통역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과 산둥이 고향인 것, 한국으로 시집을 온 연도와 6살 된 아이가 한 명 씩 있는 것 까지.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 주전엽 씨는 이쁜 딸을 머우옌미 씨는 씩씩한 아들을 두었다. 같은 듯 다른 이들은 인천에서 봉사를 하면서 행복을 찾는다.

“우리도 한국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뿌듯해요.”

관광경찰대는 2014년 7월 4일 창설됐다. AG 기간 중에는 문학경기장,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과 선수촌을 중심으로 관광경찰대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관광경찰대에서는 아랍어와 러시아, 몽골, 일본, 영어, 중국어, 필리핀, 중국어 등 10여 개국의 언어봉사가 진행 중이다.

글·사진 김민영 편집장  
文·写真 김민영(김민영)編集長 · gem0701@hanmail.net

## "本物のスリランカの味を味わって行ってください" “진짜 스리랑카 맛을 보세요”

シェフ・ポブルリース・シル바 셰프 퍼블리스 실바

各国大使館の招待で来た、名シェフたちが仁川アジア大会メインスタジアムの ‘アジア諸国の食べ物名品館’で、アジアの味を紹介している。カレーとコリアンダーの香りが調和した新鮮な食材は、各国を代表するシェフたちの手によって真髓の味を醸し出している。スリランカから来た、シェフ・ポブルリース・シルバー氏も彼の厨房で大忙しだ。彼が出したメニューは、スリランカ式の牛肉ステーキ、野菜チャーハンやチキンカレー、チンパブと豚肉、野菜、ライスヌードルとチキンカレーなどだ。

“韓国の食べ物と同様に辛い食べ物もありますが、いくつかのアイテムだけが辛いんです。”と言い、スリランカには、多様な味の食べ物があると説明。スリランカ料理

理には、合成調味料や人工色素は添加されず、健康に良い食べ物を追求すると付け加えた。

スリランカのマウント・ラビニアホテルのレストランのチーフシェフである、ポブルリース・シルバー氏は、ホワイトハウスの特別招待を受けるほど、スリランカの国民シェフだ。

각국 대사관의 초청으로 온 명품 셰프들이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아시아음식명품관’에서 아시아의 맛을 만들고 있다. 커리와 고수향이 어우러진 신선한 식재료들이 각국을 대표하는 셰프들의 손에서 진정한 맛을 찾는다. 스리랑카에서 온 셰프 퍼블리스 실바 씨도

그의 주방에서 바쁘다. 그가 내놓은 메뉴는 스리랑카식 소고기스테이크, 야채볶음밥과 치킨카레, 찐 밥과 돼지고기, 야채 쌀국수와 치킨카레 등이다.

“한국음식과 비슷하게 매운 음식도 있지만 그것은 몇 가지 아이템만 매운 뿐입니다.”라며 스리랑카에는 다양한 맛의 음식이 있다고 설명한다. 스리랑카 음식은 합성조미료나 인공색소는 첨가 하지 않고 몸에 건강한 음식을 추구한다고 덧붙인다.

스리랑카 마운트 라비니아 호텔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인 퍼블리스 실바 씨는 백악관 특별초청을 받을 만큼 스리랑카의 국민 셰프다.

글·사진 김민영 편집장  
文·写真 김민영(김민영)編集長 · gem0701@hanmail.net





## "朴泰桓(パク・テファン)選手を見て、大きな勇気を得ました"

“박태환 선수 보며 큰 용기 얻었어요”

トルコから来た ボランティア 少女 アルラルラ・ユジェル嬢  
자원봉사자, 알랄라 유젤 양



私の偶像である朴泰桓選手を見よう、という一念でトルコから来たユジェル(17)さんは、夢にまで見た韓国の地を踏んだ。朴泰桓を遠くからでも毎日見るために朴泰桓文鶴プールで、案内と通訳をするボランティアだ。

4歳の時から水泳を始めたユジェル嬢は、2年前のトレーニングの途中、肩を負傷し手術まで受けた。そんな彼女に、異国の地の朴泰桓選手は、彼女に立ち直る勇気を与えた。“2008年度、朴泰桓選手が北京五輪で金メダルを取った時から始まったんです。特に、‘勝つことが大事なのではなく、楽しむのが重要なんです’といった朴泰桓選手の言葉に、大きな感銘を受けました。”

痛い時には、朴泰桓選手を思い浮かべながら、一生懸命トレーニングしたという彼女は、今年の冬、トルコで行われる水泳選手権大会にも参加予定。17歳の幼い少女は水泳選手として、またスポーツ大会のボランティアとして、今この瞬間を誰よりも一生懸命過ごしている。“トルコと韓国は、兄弟のような国だ

と言いますよね。韓国に来るときも、全く怖くなかったんです。これから先の韓国での生活が本当に期待されます。もちろん、仁川でのボランティアとしての役割も忠実にしていくつもりです。私の人生にとって、またとないチャンスだと思って一生懸命やっていきたいです。”

自分の偶像인 박태환 선수를 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터키에서 온 유젤(17) 양은 꿈에 그리던 한국 땅을 밟았다. 박태환을 멀리서나마 매일 보기 위해 박태환문학수영장에서 안내와 통역을 하는 자원봉사자다.

4살 때부터 수영을 시작한 유젤 양은 2년 전 훈련 도중 어깨를 크게 다쳐 수술까지 받았다. 이역만리 먼 땅의 박태환 선수는 그녀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다. “2008년도에 박태환 선수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땀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특히,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즐기는 게 중요한 것’이라는 박태환 선수의 말에 큰 감명을 받았어요.” 아플 때마다 박태환 선수를 떠올리며 열심히 훈련한 그녀는 올 겨울 터키에서 열리는 수영 챔피언십 대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17살 어린 소녀는 수영 선수로서, 스포츠대회의 자원봉사로서 지금 이 순간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보내고 있다. “터키와 한국은 형제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한국에 올 때도 두려움은 없었어요. 앞으로의 한국 생활이 정말 기대돼요. 물론, 인천에서 자원봉사자로서 역할도 충실히 할 거예요. 인생에 다시 없을 기회잖아요.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차지은 기자

쥬쥬(차지은)記者 minsable@hanmail.net

## "ボクシングは必ず見なければなりませんよ"

“복싱은 꼭 봐야 해요”

キルギスタンのダルカッさん  
키르키스탄 달캣 씨



AGの開会式で、キルギスタン選手団が入場をすると、観覧席の一番前に走って行って、国旗を揺さぶった人が一人いた。彼はキルギスタン出身ダルカッ(23)氏だ。手に国旗を握りしめ、視線は遠くに立っている自国の選手に固定されていた。大型電光板に、キルギスタン選手たちが映るやいなや、彼の歓声はさらに大きくなった。

開会式を見に来たんです。終わったら再び清州に帰るんですが、ボクシングは必ず見に来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休みの日には、再び仁川に来るつもりなんですよ。” 韓国に来て2年目の彼は、清州で仕事をしている。ボクシングが好きで、現在格闘技(K1)選手としても活動している。

小学校の時からボクシングが好きで、15、6歳から運動を開始。大会にも何度も参加し、それなりに実力が認められている。韓国のボクシングを習い、格闘技運動を継続するために、体育館がある清州に居住。“まだ、私の国はメダルを獲得していません。彼らに力を与えるため競技場には必ず行くつもりなんです。”

AG 開会式에서 키르키스탄 선수단이 입장을 하자 관람객 맨 앞으로 달려 나가 국기를 흔드는 한 사람. 그는 키르키스탄 출신 달캣(23) 씨다. 손에서 국기를 놓지 않고 시선은 멀리 서 있는 그의 나라 선수에게 고정됐다. 대형 전광판에 키르키스탄 선수들이 잡히기라도 하면 그의 함성은 더욱 커진다.

“개회식을 보러왔어요. 끝나면 다시 청주

로 가요. 하지만 복싱은 꼭 봐야 해요. 쉬는 날 다시 인천으로 올 거예요.” 한국에 온지 2년 째 인 그는 청주에서 일을 한다. 복싱을 좋아하는 그는 현재 격투기(K1) 선수로도 활동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복싱을 좋아했고 15.16세부터 운동을 시작했다. 대회도 여러 번 참가하며 나름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한국의 복싱을 배우고 격투기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체육관이 있는 청주에 터를 잡았다. “아직 우리나라 메달 없어요. 그들에게 힘을 주러 경기장으로 꼭 갈 거예요.”

글·사진 김민영 편집장  
文·写真 김민영(김민영)編集長・  
gem0701@hanmail.net

## "家族全員で、AG旅行に来たんです" “온가족이 AG 여행왔어요”

タイから来た、トゥヤワツさんの家族 태국에서 온 투야왓 가족

最近、タイの女子バレーボールの強さは無視できない。アジア圏では銅メダルに近接。そのためか、今回アジア大会バレーボール競技が開かれる松林体育館には、数多くのタイ人が応援に集まってきた。彼らの大半は、韓国に移住して来た女性たちと、また職業を求めて韓国に来た男性たち。みんながタイを象徴するユニフォームを身にまとう中、目につく人たちがいた。それは、完全に今回のアジア大会を観覧するためだけに、仁川を訪れたトゥヤワツさんの家族だ。妻と2人の娘を皆連れてきていた。

“1週間休暇を取ってきたんです。い

る間にタイの試合をたくさん見て、応援していこうと思ってなんです。また片手間に仁川旅行も楽しむつもりです。合間を見ては、妻と娘たちが行きたがっているソウル観光にも必ず行って見ようと思ってます。”

요즘 태국 여자배구의 힘이 만만치 않다. 아시아권에서 동메달에 근접하고 있다. 그래서인가 이번 아시아경기대회 배구경기가 열리는 송림체육관에 많은 태국인들이 응원 왔다. 그들 대부분은 한국에 이주해 온 여성들과 직업을 찾아 한국에 온 남성들이다. 그들

가운데 태국을 상징하는 유니폼을 함께 입어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다. 순전히 이번 아시아경기대회를 참관하기 위해 인천에 온 투야왓 가족이다. 부인과 두 딸 모두 데리고 왔다.

“일주일간 휴가를 내고 왔습니다. 있는 동안 태국 경기를 많이 보고 응원할 것이며 틈틈이 인천 여행도 다닐 것예요. 짬을 내 와이프와 딸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서울 구경도 꼭 다녀를 생각합니다.”



글·사진 김민영 편집장  
文·写真 김민영(김민영)編集長・  
gem0701@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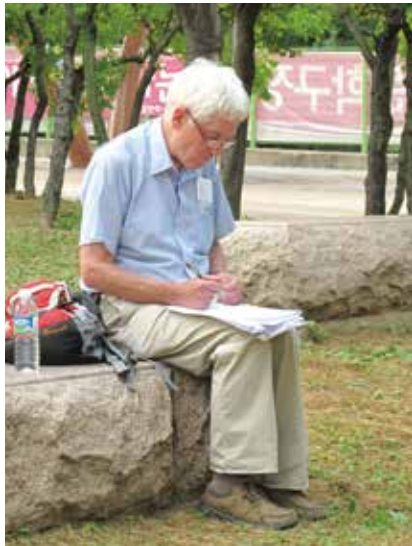
# 仁川で会ったアジア人

## 인천에서 만난 아시아인

国際都市・仁川でAGが開かれ、競技場周辺と通りでは、多様な国籍の人に出会うことができる。試合を見ようとする人と試合を見た後、再び次の試合について知りたい人など、スポーツを中心として、仁川でアジア人たちの関係はさらに深まっている。AGを見ようと道に出た人々の姿で、仁川には多彩なアジア人の姿が映しだされている。

AG 경기장 주변과 거리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경기를 보려는 사람과 경기를 보고 난 후 다시 다음 경기가 궁금한 사람, 스포츠를 중심으로 인천에서 아시아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AG을 보려고 길을 나선 사람들의 모습에는 인천 속 아시아인의 모습이 다양하게 담겨 있다.

글·사진 김민영, 차지은 P文·写真 キムミンヨン(김민영), -チャ・ジウン(차지은)



## “数字で見るAG” “숫자로 보는 AG”

1951의 뉴데리아시아大会において、競泳自由形の1,500m種目で、1位を獲得した、シンガポールの'ネオ・チュイコク'選手が、アジアンゲーム史上初の金メダリストだ。

1951 뉴델리 아시안게임에서 수영 자유형 1,500m 종목 1위 차지한 싱가포르 '네오 취국' 선수가 아시안게임 사상 최초 금메달리스트다.

韓国のアジア大会の目標順位は総合2位。

한국의 아시안게임 목표 등수는 종합 2위.

2014アジアンゲームは、韓国で3番目の開催となったアジア大会。(1986年10回、2002年14回釜山(開催))

2014 아시안게임은 한국에서 3번째 개최하는 아시안게임이다.(1986년 10회 서울 개최, 2002년 14회 부산 개최)

1



4

2



16

3



17

歴代最多開催国は、首都/バンコクで、4回開催したタイ。

역대 최다 개최국은 수도 방콕에서 4번 개최한 태국.

9월19日から10月4日まで、16日間行われる大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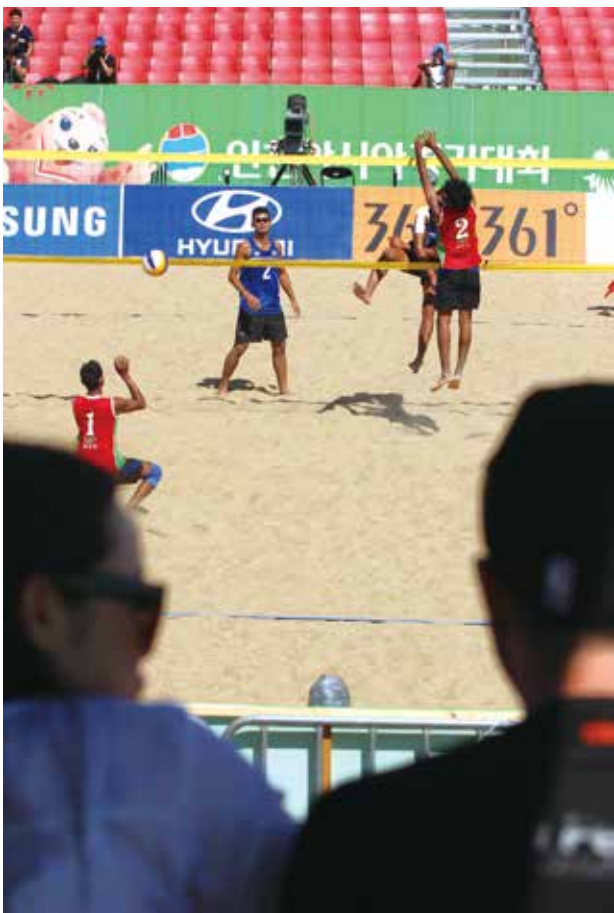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16일간 진행되는 대회

今回の仁川アジア競技大会は、

17回目のアジアンゲーム。

이번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17회 아시안게임





36種目で計439個の金メダルがかかっている。  
36개 종목에 총 439개 금메달이 걸려있다.

仁川アジア大会は、45カ国全体が参加。  
인천아시아대회는 45개국 전체가 참여했다.

仁川アジア大会で使用する全ての競技場は、  
49ヶ所。  
인천아시아대회에서 사용되는 총 경기장은 49개.

韓国が目標とする金メダルの数は、90個。  
한국이 목표하는 금메달 수 90개.

36



45



49



90



91



4,000



30,000



62,818



選手村で、日本語通訳を務めている最高齢のボランティアは、91歳の李治洙氏。  
선수촌에서 일본어 통역을 맡은 최고령 자원봉사자, 91세 이연수씨

聖火リレーの走者は、  
4,000人余り。  
성화봉송 주자는 4,000여명

運営要員は、30,000人。  
운영요원 30,000명

仁川アジア大会競技場は、  
総62,818座席。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총 62,818좌석



# 中では熱戦、外では情熱!!!

안에서는 열전, 밖에서는 열정!!!

45億のアジア人の祝祭が、賑やかに行われている。スポーツだけでなく、多種多彩な見ものと楽しい体験や食べ物まで、仁川の全地域を楽しませてくれる祭りが、連日続いている。微笑みが自然と溢れる祭りの現場、その中心にある彼らの瞬間をとらえる。短い時間が、長い思い出につながる。

45억 아시아인의 축제가 활기차게 펼쳐지고 있다. 스포츠 뿐 만이 아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까지 인천의 전 지역을 즐겁게 하는 축제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미소가 절로 나는 축제의 현장, 그 중심에 있는 그들의 순간을 찰각~. 짧은 시간이 긴 추억으로 이어진다.

글·사진 김민영, 차지은 P文·写真 キムミンヨン(김민영), -チャ・ジウン(차지은)



## 10月開催

10월에 열린다

### 仁川の蘇来浦口祭り

首都圏唯一の在来漁港、仁川の蘇来浦口祭りが、10月10日(金)から12日(日)まで開かれる。西海岸豊漁祭、花火ショー、のど自慢大会や蘇来湿地、干潟体験など、様々な体験イベントや文化公演が多彩に準備されている。蘇来浦口の海産物がおとごろに購入でき、びっくり競売イベントと地域の農水産物、割引販売は、今回の祝祭で見逃してはならないイベント。

### 인천소래포구축제

수도권 유일의 재래 어항, 인천소래포구 축제가 오는 10월 10일(금)부터 12일(일)까지 열린다. 서해안 풍어제, 불꽃 쇼, 장기자랑 및 소래습지 갯벌 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문화공연이 다채롭게 준비됐다. 소래포구의 해산물을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는 깜짝 경매행사와 지역농수산물 할인판매는 이번 축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이벤트다.

### 第11回、仁川ドリームパーク菊祭

仁川市西区に位置する、首都圏埋立地が花の香りで一杯。春、秋に咲く季節の花が今年も期待通りドリームパークを埋めつくした。28万坪の大地には、菊の花やコスモスが大群落を成し、野生の花地区、自然・湿地観察地区とともに、国内最大規模の菊の作品が展示されている。仁川AGの期間に合わせ、この9月20日(土)から始まったドリームパーク菊祭は、10月5日(日)まで続く。

### 제11회 인천드림파크국화축제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가 꽃향기로 가득하다. 봄, 가을마다 피어나는 계절 꽃들이 어김없이 드림파크를 가득 메웠다. 28만평의 대지에는 국화와 코스모스가 대군락을 이루며 야생화지구, 자연·습지관찰지구와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국화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인천AG 기간에 맞춰 지난 9월 20일(토) 시작된 드림파크 국화축제는 오는 10월 5일(일)까지 이어진다.





#### 仁川-中国文化観光・フェスティバル

仁川市は、アジアゲームと祝日を連携した、'仁川-中国文化観光・フェスティバル'を、10月3日(金)から10月5日(日)まで開催。韓国と中国文化を一堂に会して見られる祭りで、韓・中の伝統的な公演とともに、伝統遊び、服飾などの文化体験イベントなど中区のチャイナタウン、および自由公園一帯で行われる。特に、今年は、寄付体験を通じ恵まれない人々を助けるためのイベントが用意され、意味深い祭典になることが予想される。

#### 인천-중국 문화관광페스티벌

인천시는 아시안게임과 국경절을 연계한 '인천-중국 문화관광페스티벌'을 10월 3일(금)부터 10월 5일(일)까지 개최한다. 한국과 중국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축제로 한·중 전통공연과 더불어 전통놀이, 복식 등의 문화체험행사 등이 중구 차이나타운 및 자유공원 일대에서 진행된다. 특히 올해에는 기부체험을 통한 불우이웃 돕기 이벤트가 마련돼 뜻 깊은 축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仁川松島音楽、花火フェスティバル

10月11日、松島国際都市において、第2回、仁川松島音楽花火大会が開催。今回の花火大会では、勇壮な音楽に合わせて踊る花火とともに、レーザーショー、映像、照明などが共に演出され、マルチメディアショーとして構成される。花火は、仁川アートセンター湖の近くであげられる予定で、松島の全地域で鑑賞を楽しむことができる。

#### 인천송도음악불꽃축제

오는 10월 11일, 송도국제도시에서 제2회 인천 송도음악불꽃축제가 진행된다. 이번 불꽃 축제는 웅장한 음악에 맞춰 춤추는 불꽃놀이와 더불어 레이저 쇼, 영상, 조명 등을 함께 연출해 멀티미디어 쇼로 꾸며진다. 불꽃은 인천 아트센터호수 인근에서 터프릴 예정이며, 송도 전지역에서 감상할 수 있다.



# Incheon, Now

## 지금, 인천은

### 柳市長、東京都知事と会見、両都市の協力の意見を交す

劉正福(ユ・ジョンボク)仁川市長は、9月20日、仁川市庁で舛添要一、東京都知事と会談、両都市の協力強化について意見を交わし合った。

仁川アジア大会の開会式出席のため、仁川を訪問した舛添知事は、柳市長にアジア大会の成功的な開会式を祝うと共に、2020年東京オリンピックへの仁川からの協力を要請。舛添知事は、東京オリンピックの最も大きな課題である、競技場新設に伴う莫大な財政費用の増加を挙げ、コスト削減のための仁川市の財政対策は、どのようなものだったのか助言を願った。柳市長は、“経済的かつ効率的な大会を開催するため、既存施設を積極的に活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や、“競技場新設時には、政治的接近を止揚し、大会終了後の競技場と関連施設の多角的な活用方案について綿密に準備するべきだ。”と答えた。

### 유 시장, 도쿄도지사 만나 양 도시 협력 의견 나뉨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9월 20일 인천시청에서 마스조에 요이치 도쿄도지사를 접견하고 양 도시의 협력 강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인천아시안게임 개회식 참석차 인천을 방문한 마스조에 지사는 유 시장에게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회식을 축하하고 2020년 도쿄올림픽 때 인천의 협력을 요청했다. 마스조에 지사는 도쿄올림픽의 가장 큰 과제로 경기장 신설에 따른 막대한 재정비용 증가를 꼽고, 비용절감을 위한 인천시의 재정 대책이 어떤 것이었는지 조언을 부탁했다.

유 시장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기존시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경기장 신설 땀 정치적 접근을 지양하고 대회 개최 이후에도 경기장과 관련 시설을 다각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 医療観光財団、'1-Hour Medical Service' 開所式 举行

仁川医療観光財団は、この9月17日、仁川アジア大会を控え、仁川IS翰林(ハンリム)病院で、医療観光協力医療機関の開所式を行った。今回の'1-Hour Medical Service'というロゴには、仁川国際空港が仁川に位置していることから、医療観光客が1時間以内で仁川の医療機関を訪問できるという意味が盛り込まれている。

財団は2020年までに、年間外国人患者10万人を目標とした、医療観光マーケティングを展開しており、競争力を強化し、仁川を'ヘルスケア(Healthcare)都市'にするための努力をしている。昨年、仁川を訪問した外国人患者は10,432人で、国家別にみると、中国人3,685人(35.3%)で最も多く、その次にロシア(9.5%)、アメリカ(8.1%)、モンゴル(3.7%)などの順。

### 의료관광재단, '1-Hour Medical Service' 현판식 거행

인천의료관광재단은 지난 9월 17일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인천IS한림병원에서 의료관광 협력 의료기관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번 현판의 '1-Hour Medical Service'란 로고는 인천국제공항이 인천에 자리 잡고 있어 의료관광객이 1시간 내 인천의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재단은 2020년까지 연간 외국인환자 10만 명을 목표로 의료관광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경쟁력을 강화하여 인천을 '헬스케어(Healthcare)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을 방문한 외국인환자 10,432명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 3,685명(35.3%)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러시아(9.5%), 미국(8.1%), 몽골(3.7%)등 순이다.

### 仁川市、2兆の国費確保

仁川市の来年度予算が約2兆78億ウォンに確定され、18日閣議を通過。国会予算決算委員幹事であるセヌリ党の李鶴宰(イ・ハクジェ、仁川西江華甲)議員によると、同日2015年度・政府予算案376兆ウォンが閣議で確定され、このうち仁川市が確保した国費は、計2兆78億5200万ウォン。同日確定された仁川市の予算は当初、市が申請した1兆9288億7000万ウォンより、789億8200万ウォン増額された金額。

これによって、仁川の宿願事業であった都市鉄道2号線の早期開通はもちろんのこと、7号線青羅(チョンナ)延長事業と、ロボットランド事業が正常に推進されることとなった。

李議員は、“市とセヌリ党所属地域の国会議員たちの協力プレーにより、昨年と比較して政府予算案編成の段階で良い成績を収めることとなった”と語った。

### 인천시 2조 국비 확보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이 약 2조78억으로 확정돼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갑) 의원에 따르면 이날 2015년도 정부 예산안 376조원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고, 이 중 인천시가 확보한 국비는 총 2조78억5200만원이다. 이날 확정된 인천시 예산은 당초 시가 신청한 1조9288억7000만원보다 789억82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인천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2호선 조기개통은 물론 7호선 청라연장사업과 로봇랜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시와 새누리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업 플레이로 지난해와 비교해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말했다.

### 児童福祉館、親コーチング教育を進行

仁川広域市児童福祉館は、低所得・危機児童心理治療、及び家族心理治療への参加経験がある児童の保護者を対象に、10月15日まで毎週水曜日、'成功的な親コーチング教育'を実施。児童福祉館の家族治療専門家であり、父母教育専門家であるハンヨン란博士が、計4会期の間、父母教育の期待効果、危機克服の意味、子供の自尊心を高める対話技術などの内容で、集中的な親の役割教育を進めていく予定。(☎440-8064)

### 아동복지관, 부모코칭 교육 진행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은 저소득·위기 아동심리치료 및 가족심리치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아동의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10월 15일까지 매주 수요일 '성공적인 부모코칭 교육'을 진행한다. 아동복지관 가족치료 전문가이자 부모교육 전문가인 한영란 박사가 총 4회기 동안 부모교육의 기대효과, 위기 극복의 의미,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대화기술 등의 내용으로 집중적인 부모 역할 교육을 진행한다. (☎440-8064)

차지는 기자  
쥬온(차지)은記者minsable@hanmail.ne

## 仁川市 多文化関連機関 連絡先

### 인천시 다문화관련기관 연락처

#### 仁川市役所 多文化政策課

인천시청 다문화정책과 ☎ 032-440-2866  
仁川広域市 南洞区 九月洞 1135-11 パークアベニュービル7階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5-11 파크에비뉴빌딩 7층

#### 中区 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891-1094  
仁川広域市 中区 ジェムルリヤン路 122 奎洞信用協同組合ビル4階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122 당동신협빌딩 4층

#### 桂陽区 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

계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541-2860-1  
仁川広域市 桂陽区 桂陽山路 102番通り 5 社会福祉会館 3階  
인천 계양구 계양산로 102번길 5 사회복지회관 3층

#### 南区 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875-1577  
仁川広域市 南区 キョンウォン(경원)大路 890 B25号 (朱安6棟 ポミリジュンビル)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 189 5층 (학익동)

#### 南洞区 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

남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467-3912  
仁川広域市 南洞区 マンス6洞 チャンスン路 59-2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장승로 59-21

#### 富平区 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511-1800  
仁川広域市 富平区 キルチュ路539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539

#### 延寿区 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

연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851-2740  
仁川広域市 延寿区 チョンヌン大路 109(タップピオンビル4階)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109 (탑피온빌딩 4층)

#### 西区 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569-1560  
仁川広域市 西区 ギョンミョン大路 693番通り 6 (公村洞 305-13)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693번길 6 (공촌동 305-13)

#### 東区 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773-0297  
仁川広域市 東区 フアドジン路 44番通り 21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44번길 21

#### 江華郡 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 933-0980  
仁川広域市 江華郡 江華邑 北門通り 11-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 11-1

#### 仁川外国人力支援センター

인천외국인력지원센터 ☎ 032-431-5757  
仁川広域市 南洞区 ノンヒョン洞 636-3 ミョンジンプラザ12階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36-3 명진프라자 12층